

#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

김 정 선\*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간호는 고도로 전문화되어지고 기관화해가는 의학의 영향으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매우 발달해 가고 있는 반면 인간을 전체로 보는 본래의 간호어념인 돌봄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은 간호의 핵심이고 간호의 지식체와 실무의 중심을 이루며 이들을 통합하는 영역으로서(Leininger, 1978, 1981) 인간 중심의 돌보는 활동을 하고 간호의 지식체를 발달시키기 위해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돌봄은 간호학의 핵심영역으로써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돌봄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진한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간호학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돌봄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면 돌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더욱 만족스런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돌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돌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지각하는 돌봄개념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돌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돌봄의 의미를 개념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들의 돌봄개념의 의미에 대해 진술한다.
2. 간호학생들이 진술한 돌봄개념의 의미를 외국문헌에 나타난 돌봄개념의 의미와 비교 검토해본다.
3. 간호학생들의 돌봄받은 경험에 대한 지각을 기술한다.

### C.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일 간호전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2.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 II. 문헌고찰

돌봄은 인류역사를 통해 가장 오래된 인간행동 중의 하나로서 간호의 핵심이며 간호의 지식체와 실무를 위한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영역이다(Leininger, 1981).

간호사와 다른 건강요원들은 care, caring, health care, nursing care란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들 용어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지식의 기초가 없다. 간호교육과정 또한 아직도 간호나 돌봄행위보다 의학적 질병, 상태, 치료에 더 많은 내용

\*기독병원 간호전문대학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Leininger(1981)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돌봄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돌봄은 인간의 성장발달과 인류생존에 중요하며 다양한 생활배경내에서 돌보는자와 돌봄을 받는자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와 미래 인류문화를 위한 인간속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대 전문직 간호가 시작된 이래로 간호전문가가 nursing care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돌봄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돌봄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졌는데,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웹스터 신영한 대사전에서는 「care」는 걱정하다, 염려하다, 관심을 갖다, 돌봄, 보호 등으로 나와있고(조병익, 1984) 국어사전에는 「돌보다」는 뜻이 도와주다, 뒤를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 등으로 나와있다(이희승, 1981). 이는 영어의 care와 caring이 우리말로 「돌봄」 혹은 「보살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변영순, 김남선, 1989, 김애경, 1991).

나이팅게일은 돌봄을 청결, 맑은공기, 좋은음식, 휴식, 수면과 관련이 있게 보았는데, 나이팅게일 시대 이후 돌봄은 nursing으로서 관심과 동정, 흥미를 갖고 care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Leininger(1981)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나이팅게일 이래로 확실히 정의되지 않은채 간호와 자주 혼용되어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care와 caring을 상대방에게 조력적이고 지지적이며 촉진적인 행동으로 정의했으며(Leininger, 1979), 여러 문화에서 돌봄의 구성요소를 확인했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Comfort, Compassion, Concern, Coping Behaviors, Empathy, Enabling, Facilitating, Interest, Involvement, Health Consultative Acts, Health Instruction Acts, Health Maintenance Acts, Helping Behaviors, Love, Nurturance, Presence, Protective Behaviors, Restorative Behaviors, Sharing, Stimulating Behaviors, Stress Alleviation, Succorance, Support, Surveillance, Tenderness, Touching, Trust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여개의 문화에 나타난 개념 중에서 보편성을 띤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에 초점을 두고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지식체를 정립하기 위해 보편적인 돌봄의 구성요소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Bevis(1982)는 돌봄을 상호자아실현과 친밀감을 증진함으로써 삶에 적극적인 동기와 활력을 주기위해 상

대방에게 몰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돌봄의 과정을 attachment, assiduity, Intimacy, Conformation의 네 단계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nursing care와 항상 관계가 있으나 nursing care를 강조하기 보다 nurse caring을 강조하고 있다.

Mayeroff(1971)는 돌봄은 단순히 관심 이상의 것으로 타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돕는 것으로 보았으며 Mitchell(1981)은 돌봄을 타인에게 갖는 관심, 존중과 존경의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돌봄의 본질은 다른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May, 1969) 다른 사람을 돕기위한 것이 기본인데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개별적 간호를 제공하는 대신 오직 전문적 기술에만 집중하여 wholeness가 결여된 돌봄이 없는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돌봄의 이론과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간호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eidegger(1962)는 돌봄을 의지의 근원으로 보고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현상으로서 양심 그 자체를 돌봄이라고 믿었다. May가 돌봄을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일, 현신, 존재로 본 반면 Heidegger는 돌봄을 생활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Watson(1985)은 과학과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돌봄의 요소를 제시했으며 대상자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것을 돌봄이라고 정의하였다.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돕는관계(helping relationship)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Field, 1984) Watson도 human caring과 human relationship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간 대 인간의 돌봄과정을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Transpersonal Caring relationship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간호사가 상대방의 주관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는 물론 상대방의 내적상태와 느낌을 발견하고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Watson, 1988).

Linn(1975)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학생들의 care-cure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의대생들은 care보다 cure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간호학생들은 돌봄(care)에 더욱 중요성을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은 의대생보다 더 치유(cure) 중심적이었고 간호사들은 의사나 의대, 간호학생들보다 더 돌봄(care) 중심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영희(1990)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이라는 연구에서 전통문화를 전제로 하여 돌봄행위 유형과 돌봄 구

성요소를 이끌어 냈는데 65개의 돌봄행위에서 도출된 돌봄구성요소는 존중, 신뢰, 정, 봉양, 안위, 연민, 애통합, 자신을 다스림, 가르침, 기원의 10가지로 분류하였다.

고, 조, 최, 강(1990)은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관한 연구에서 출생상황을 중심으로 돌봄개념 및 그 의미를 파악했는데 29개의 돌봄행위 유형에서 14개의 돌봄 구성요소로 범주화시켰다. 즉 가르침, 기원, 안위, 복돋움, 나눔, 이심전심, 자기수양, 보호, 준비, 도움, 연민으로 나타났으며 변영순, 김남선(1989)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돌봄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데 사랑, 도움, 공감, 편안, 온정, 지지, 관심, 충족, 건강, 회복의 돌봄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애정(1991)은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과 비돌봄의 구성요소를 알아봄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개념화 하였는데 돌봄의 구성요소로서는 관심, 온정, 성의, 함께함, 부드러움, 도움, 편안함, 가르침, 위로로 범주화 했으며 비돌봄의 구성요소로는 무관심, 냉담함, 무성의, 함께하지 않음, 거침음으로 범주화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돌봄행위와 태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인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한경자, 1987).

따라서 대상자를 독특한 개인으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선 돌봄에 대한 신념, 가치, 관행을 간호실무에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돌봄과 관련된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은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서술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 A.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 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2,3학년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총 343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입원경험 유·무별, 임상실습 유·무별, 종교별 네 변인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 B.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1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9일간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점 비지시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양식은 대상자가 다음의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솔직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1.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2. 지금까지 돌봄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만일,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돌봄을 받았으며,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 C. 자료분석과정

자료분석을 위해 먼저 1단계로서 대상자들이 돌봄의 의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결과 문장을 추출한 결과 의미있는 진술은 총 589개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은 571개였으며 신뢰계수는 0.96이었다. 신뢰도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frac{2M}{Na+Nb}$$

M : 두 분석자가 일치된 분석수  
Na : 분석자 a가 분석한 분석수  
Nb : 분석자 b가 분석한 분석수

신뢰도 검정 후 “편안하게 해 줌”, “부담없는 상태로 해 줌”과 같이 도출된 진술들 중에서 똑같은 의미로 반복 표현된 진술들은 삭제하고 하나의 진술을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의미있다고 확인된 진술은 총 557개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70개의 돌봄행위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공통되는 속성으로 묶어 범주화한 결과 16개의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원자료의 범주화는 문헌고찰 및 국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범주화에 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박사과정 1인, 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 과정에서 대상자가 의미하는 뜻은 같으나 진술표현이 다른 것은 대상자들이 표현한 그대로를 모두 나열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A.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대상자의 연령별, 입원경험 유·무별, 임상실습경험 유·무별, 종교별 네 변인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1학년은 18세~19세가 60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26세 이상은 하나도 없었다. 2학년은 20~21세가 53명(49.5%), 3학년은 22~23

세가 60명(50.5%)로 가장 많았으며, 18~19세인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대상자의 입원경험 유·무에서는 총 343명 중 42명(12.2%)만 입원경험이 있고 301명(87.8%)이 입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경험 유·무별로는 1학년 116명(33.8%)은 아직까지 병원에 나가 임상실습을 해 본 경험이 한번도 없었고, 2,3학년 227명(66.1%)은 모두 임상실습경험이 있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1,2,3학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72%가 기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기독교계의 대학에 소속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표1 참조>.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1학년(%)	2학년(%)	3학년(%)	총(%)
나	18-19세	60(51.7)	2(1.9)	0(0.0)	62(18.1)
	20-21세	45(38.8)	53(49.5)	45(37.5)	143(41.7)
	22-23세	9(7.8)	31(29.0)	60(50.0)	100(29.2)
	24-25세	2(1.7)	18(16.8)	12(10.0)	32(9.3)
	26세 이상	0(0.0)	3(2.8)	3(2.5)	6(1.7)
입원경험	유	16(13.8)	12(11.2)	14(11.7)	42(12.2)
	무	100(86.2)	95(88.8)	106(88.3)	301(87.8)
임상실습경험	유	0(0.0)	107(100.0)	120(100.0)	227(66.1)
	무	116(100.0)	0(0.0)	0(0.0)	116(33.8)
종교	기독교	93(80.2)	67(62.6)	87(72.5)	247(72.0)
	가톨릭	4(3.4)	18(16.8)	12(10.0)	34(9.9)
	불교	0(0.0)	3(2.8)	2(1.7)	5(1.5)
	무	19(16.4)	19(17.8)	19(15.8)	57(16.6)
총		116(100.0)	107(100.0)	120(100.0)	343(100.0)

##### B. 결과 및 논의

원자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도출된 557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통하여 70개의 돌봄행위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공통되는 속성으로 묶어 범주화한 결과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함께함>, <보호>, <건강유지>, <충족>, <온정>, <가르침>, <공감>, <신뢰>, <나눔>, <회복>, <양육>의 총 16개의 돌봄 구성요소로 분류되었다<표2 참조>.

<표2>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행위유형
도움	도와주다
	보살펴주다
	봉사하다
	협력하다
	관리하다
	간호하다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행위유형
편안	편안하게 해주다
	안위를 제공하다
	안전하게 하다
	긴장을 완화시키다
	고통을 감소시키다
사랑	사랑하다
	아껴주다
	정성을 쏟다
	아낌없이 주다
	헌신하다
관심	희생하다
	관심을 쏟다
	신경을 쓰다
	지켜봐 주다
	염려해 주다
	생각해 주다
	돌아봐 주다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행위유형
	돌아봐 주다
지 지	지지하다 힘이 되어주다 격려하다 의지가 되다 용기와 희망을 주다 적용하다
함께 함	함께 있어주다 옆에 있어주다 친구가 되어주다 외롭지 않게 하다 관계를 맺다
보 호	보호하다 예방하다
건강유지	건강을 유지하게 하다 안녕을 유지하게 하다
충 족	원하는 것을 해주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다 부족함을 메꿔주다 보충해주다 필요를 채워주다
회 복	건강을 회복하다 빨리 낫게 하다 치료하다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행위유형
온 정	감싸주다 친절한 행위를 베풀다 포근하게 하다 위로하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가 르 침	가르치다 알려주다 이끌다 교육하다 학습하다 인도하다
공 감	감정 이입하다 이해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다
신뢰	존엄성을 인정하다 있는 그대로 봐주다 대우해주다 존중하다
나눔	같이 나누다 이야기를 나누다 상담하다
양육	섭기다 키워주다 기르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돌봄개념의 범주들을 30개의 문화로부터 도출한 Leininger의 돌봄 구성요소와 비교해 볼 때, <도움>→Helping behavior, <편안>→Comfort, <사랑>→Love, <관심>→Concern, <지지>→Support, <함께함>→Presence, <보호>→Protective behavior, <건강유지>→Health maintenance, <가르침>→Instruction Acts, <공감>→Empathy, <신뢰>→Trust, <나눔>→Sharing, <회복>→Restorative behaviors, <양육>→Nurturance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온정(Warmth)은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경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온정>의 범주에 포함시켰는데 Leininger의 돌봄 구성요소에서는 <온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변영순 외(1989),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는 물론 본 연구결과에서도 온정이 돌봄의 구성요소로 확인이 되어 그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충족(fulfillment)은 변영순 외(1989)에 의하면 Leininger의 돌봄 구성 요소 가운데 "Succorance"의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

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Leininger의 돌봄 구성요소 중 Compassion, Coping Behavior, Enabling, Facilitating, Interest, Involvement, Health Consultative Acts, Stimulating behavior, Stress Alleviation, Succorance, Surveillance, Tenderness, Touching 등은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문화만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인이 아닌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원자료에서 「치료하는 것」, 「간호하는 것」이라는 전문적인 진술들을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영희(1990)의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인의 민간돌봄의 구성요소에서 정, 봉양, 존중이 본 연구에서는 사랑, 양육, 신뢰의 돌봄 구성요소로 포괄되었고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 성의의 구성요소 중 정성껏 하다는 돌봄행위 유형은 본 연구에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로 포괄하였다. 또한 도움의 구성요소에 요구를 충족시켜 줌의 돌봄행위유형을 포함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영순 외(1989)에서와 같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은 도움의 속성과 별도로 하여 충족의 돌봄 구성요소로 정하였다. 그 의

온정, 관심, 함께함, 편안, 가르침은 김애정(1991)의 연구와 일치되어 나타났고,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충족, 온정, 공감, 회복은 변영순 외(1989)의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함께함, 보호, 유지, 가르침, 신

뢰, 나눔, 양육의 구성요소가 본 연구에서는 확인이 되었다.

다음은 연구결과로 나타난 개별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3 참조).

〈표3〉 돌봄개념의 의미

구성요소	원 자 료	학 년			총(%)
		1	2	3	
도움	보살펴 주는것, 봉사해 주는것, 불편한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것, 물질적 도움을 주는것, 보조해 주는것, 협력해 주는것. 관리해 주는것, 곤경에 처한사람을 도와주는것,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것, 거동이 불편한 자를 간호해주는것	62	52	51	165(48.1)
편안	마음을 편하게해주는것,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것,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것,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것,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것,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것, 안위를 제공해주는것, 편안하고 행복한것,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것, 긴장을 완화시켜주는것,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것, 불편함을 완화시켜 주는것	33	28	35	96(28.0)
사랑	사랑을 쏟는것, 아껴주는것, 사랑을 베푸는것, 아낌없이 주는것, 정성을 쏟는것, 분신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것, 헌신적으로 해주는것, 희생적으로 사랑하는것	8	21	32	61(17.8)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것, 정성을 다해관심을 쏟아주는것, 마음을 써주는것,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것, 작은일에도 신경써주는것, 관심과 사랑으로 염려해주는것, 약한자를 생각해주는것, 옆에서 지켜봐주는것	4	10	30	44(12.8)
지지	스스로 활동하도록 지지해주는것,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것, 어려울때 힘이되어 주는것, 나약한 사람을 지지해 주는것,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지지해 주는것, 격려해주는것, 의지가 되어 주는것, 환자의 밑바탕이 되어주는것, 용기와 희망을 갖게해주는것,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것	4	13	17	34(9.9)
함께함	함께 있어주는것, 옆에 있어주는것, 같이 있어주는것, 함께해 주는것, 친구가 되어주는것, 외롭지 않게 해주는것, 관계를 맺는것	2	14	10	26(7.6)
보호	외부로부터 보호하는것, 안전하게 보호하는것,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것, 예방하는것	10	5	7	22(6.4)
건강유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것, 질병없는 상태로 유지시켜주는것, 안녕을 유지해주는것,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것,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것	4	3	13	20(5.8)
충족	원하는 것을 해주는것,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것, 부족한점을 채워주는것, 보충해주는것,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것, 필요를 채워주는것	3	7	7	17(4.9)
회복	건강을 회복시켜주는것, 원상태로 해주는것, 빨리 낫게해주는것, 아픈사람을 치료해주는것	12	1	3	16(4.7)
온정	부드럽게 감싸주는것, 친절한 행위를 베푸는것, 포근하게 해주는것,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것, 이야기를 잘들어주는것	3	5	6	14(4.1)
가르침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것,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주는것, 교육하는것, 학습시키는것, 더 좋은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것, 안내가 되어주는것	0	6	7	13(3.8)
공감	감정이입 하는것, 공감대를 형성하는것, 인격적으로 이해하는것, 아픔을 이해하는것, 마음을 이해하는것, 함께 아파하는것	1	4	7	12(3.5)
신뢰	존엄성을 인정하는것, 인격체로 인정하는것, 있는 그대로 봐주는것,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것, 인격을 존중해 주는것	0	6	2	8(1.75)

나	능	신체적·정신적으로 같이 나누는것,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하는것, 사랑을 나누는것, 아픔을 나누는것	1	3	2	6(1.75)
양	육	섬기는것, 키워주는것,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것	0	0	3	3(0.87)

자료의 분류결과 <도움>의 범주가 가장 많은 대상자들 165명(48.1%)에 의해 표현되었다. <도움>에는 “보살펴 주는것”, “불편한 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것”,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와 주는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1학년>2학년>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 환자들이 진술한바에 의하면 주로 신체적 도움이 많이 나타나고 정신적 도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도움 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까지 포함하고 있어 간호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는 <사랑>의 범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도움>의 범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편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것”,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것”,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것”,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아 편안으로 범주화시켰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으로써, 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것”, “희생적으로 사랑하는것”, “본신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정성을 쏟는것”도 <사랑>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Fromm은 사랑이 돌봄의 구성요소가 되며 Bevis(1981)도 사랑을 돌봄의 구성속성으로 보았는데 최영희(1990),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는 사랑이 우리나라의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관심>은 “마음을 써주는것”, “작은 일에도 신경써 주는것”,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것” 등의 진술을 포함하였다.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이 느끼는 관심의 표현은 자주 물어봐주고 찾아봐주며 신경을 써 주는 것이라 했으며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봄을 자기지향적이 아닌 타인지향적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두 사람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것”, “어려울때 힘이 되어주는것”, “의지가 되어주는것” 등의 내

용을 포함하였다. 미국 간호사들에 있어 지지(Support)란 nursing care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Gardner & Wheeler, 1981), 사랑과 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지의 구성요소는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함>은 “함께 있어주는것”, “옆에 있어쓰는것”, “함께 해주는것”, “관계를 맺는것” 등을 포함했는데 2학년>3학년>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는 함께함의 구성요소가 전혀 진술되지 않았으나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는 “이야기하는것 잘 들어주는것”을 함께함의 속성으로 범주화 하였다. Parse(1978)는 돌봄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Heidegger도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하였다(Guthrie, 1979). 이와같이 함께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돌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것”,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것”, “예방하는것” 등을 포함하였으며 1학년>3학년>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변영순 외(1989)와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 조, 최, 강(1990)의 연구에서는 몸을 보하다, 예방하다의 개념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유지>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것”, “안녕을 유지해주는것”,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3학년>1학년>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충족>은 “원하는 것을 해 주는것”,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것”,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변영순 외(1989)의 연구에서와 같이 Leininger의 succorance와 유사한 의미로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회복>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것”, “빨리 낫게 하는것”, “아픈사람을 치료하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1학년>3학년>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치료의 의미는 낫게 하는 것으로 보아 회복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는데, 1학년에서 회복의 구성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것은 돌봄을 “치료하는것”으로 많이 진술하였기 때

문이다.

〈온정〉은 “부드럽게 감싸주는것”, “포근하게 해주는 것”,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것”,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등의 내용으로 범주화했다. 온정 즉 따뜻한 정은 한 국민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범주라고 보았다(김애정, 1991).

〈가르침〉은 “사람됨을 가르치는것”, “교육하는것”,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Leininger의 Health Instruction Acts와 유사한 의미로서 돌봄의 보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1학년에서는 가르침의 구성요소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은 “감정이입 하는것”, “이해 하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Leininger의 돌봄 구성요소 가운데 Empathy와 일치하며 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존엄성을 인정하는것”, “인격체로 대우해주는것”, “인격을 존중해 주는것” 등을 포함했으며 이는 Leininger의 Trust와 일치하는데 1학년에서는 한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눔〉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같이 나누는것”,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상담하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2학년>3학년>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은 “섬기는것”, “키워주는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는데 1.2학년에서는 양육의 구성요소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1학년에서는 돌봄에 대한 개념이 주로 도움, 편안, 회복, 보호, 사랑 순으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도움, 편안, 사랑, 함께함,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가 돌봄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르침, 공감, 신뢰, 나눔, 양육의 구성요소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상자들이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돌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98명(86.9%) 없는 사람이 45명(13.1%)으로 나타났다(표 4-1참조). 〈표 4-2〉에서와 같이 돌봄 제공자는 주로 어머니가 가장 많이 돌봄을 준 것으로 나타나 간호는 모성적인 돌봄과 병행할 뿐 아니라(Ray, 1978) 그 어원이 모성적인 돌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4〉 돌봄받은 경험

〈표 4-1〉 돌봄경험유·무

돌봄경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있다	96(82.8)	96(89.7)	106(88.3)	298(86.9)
없다	20(17.2)	11(10.3)	14(11.7)	45(13.1)
	116(100.0)	107(100.0)	120(100.0)	343(100.0)

〈표 4-2〉 돌봄 제공자

돌봄 제공자			빈도(명)
어	머	니	107
아	버	지	3
부	모		55
언	니		26
형	제		30
가	족		21
할	머	니	4
친		구	40
친		척	6
간호사·의사			6
선		배	4
목	회	자	4
하	나	님	7
선	생	님	2

그리고 돌봄받은 경험에서는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으로 분류했는데 좋았던 경험으로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동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이는 돌봄의 구성요소 중 편안해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는데 돌봄을 통해 편안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사랑의 구성요소에 포함된 내용인데 즉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기쁨을 얻고 우정이 생겼으며 흐뭇함과 고마움, 감사를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희망과 용기를 얻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포근함과 따스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이미 온정이 돌봄의 구성요소로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었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든든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민과 갈등도 해결되어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좋았던 경험을 한 사람은 180명(60.4%)이었으며, 반면에 나빴던 경험을 한 사람은 55명(18.4%)이었다(표 4-3참조), 〈표 4-4참조〉.



<표4-3> 돌봄받은 경험(좋았던 경험)

구성요소	좋았던 경험	빈도(명)	총계(%)
편안	편안한 느낌이 들	37	66(36.7)
	위로가 됨	27	
	동통이 해소됨	1	
	기분이 좋음	1	
사랑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	42	59(32.8)
	기쁨을 얻음	2	
	우정을 느낌	1	
	고마움, 감사함 느낌	15	
지지	희망과 용기를 얻음	9	17(9.4)
	격려가 됨	8	
관심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낌	16	16(8.9)
온정	포근함을 느낌	3	11(6.1)
	따스함을 느낌	6	
	더욱 친해짐	2	
신뢰	가치있다고 생각됨	2	6(3.3)
	자신감이 생김	2	
	든든함을 느낌	2	
충족	고민과 갈등이 해결됨	5	5(3.3)
		180(60.4)	

<표4-4> 돌봄받은 경험(나빴던 경험)

구성요소	나빴던 경험	빈도(%)
불친절	불친절한 언행과 표정, 쌀쌀하고 투박한 간호,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때, 지나치게 간섭 했을 때, 자꾸 귀찮게 할 때	21(38.1)
무시	자율성을 무시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데도 미숙하니까 라는 식으로 무시했을 때,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돌볼 때, 도움이 필요없는데도 도와줄 때, 자존심 상하고 기분나쁨, 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아픈 것이 모두 내 탓인양 말할 때, 아픔을 비난할 때, 독자성을 살릴 수 없을 때, 지나친 돌봄으로 소극적이 되고 자립심이 없어 짐, 무기력해짐.	18(32.7)
무관심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서러움, 외면하고 자기 일만 할 때,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 주었을 때,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행동할 때, 말로만 형식적으로 돌봐줄 때, 형식적으로 위로해 줄 때, 돌봐주는 척 했을 때, 신체적 치료만 받았을 때.	13(23.6)
격리	외롭게 만들 때, 격리되었을 때, 아주 싫음	3(5.5)
		55(18.4%)

나빴던 경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불친절한 언행과 표정, 쌀쌀하고 투박한 간호로서 이는

<불친절>로 분류하였는데 김애정(1991)의 연구에 의하면 비돌봄의 구성요소 중 냉담함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는 자율성을 무시당하거나 아픔을 비난하거나 지나친 간섭, 그리고 과잉돌봄으로 자립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신뢰의 돌봄 구성요소 중 무시는 존중하다는 돌봄행위유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 또한 칭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칭찬은 돌봄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Bevis, 1982).

<무관심>은 관심을 주지 않거나 말로만 형식적으로 돌봐줄 때, 신체적 치료만 받았을 때를 포함했는데,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 비돌봄의 구성요소 중 무관심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돌봄받은 경험에서 외롭게 만들 때, 격리되었을 때 아주 싫었다고 하였는데 함께함이 돌봄의 구성요소라면 격리는 함께하지 않음으로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돌봄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학생들의 돌봄개념과 돌봄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체 간호학생들에 의해 가장 많이 나타난 돌봄개념과 돌봄경험은 도움을 제외하고는 사랑, 편안, 관심, 지지로서 일치함을 보였다. 반면에 온정, 신뢰, 충족은 돌봄 개념에서는 적게 나타났지만 돌봄경험에서는 좋았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돌봄경험을 통해 나빴던 경험들은 되도록 삼가하고 좋았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호에 임하므로써 대상자들에게 더욱 만족스런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V. 결론 및 제언

### A.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알아봄으로써 간호학생들이 돌봄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이론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지역의 간호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2,3학년 총 34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1991년 5월 6일에서 5월 2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개방식 질문을 사용한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간호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의 의미를 세 단계의 분류를 거쳐 범주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는 간호학 교수 1인, 내용 타당도 검증은 박사과정 1인,

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해 결정되어져 총557개의 의미있는 자료를 통하여 70개의 돌봄행위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16개의 돌봄구성요소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돌봄의 구성요소로서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함께함, 보호, 건강유지, 충족, 온정, 가르침, 공감, 신뢰, 나눔, 회복, 양육의 요소가 확인되었다.

1학년에서는 돌봄에 대한 개념이 주로 도움, 편안, 회복, 보호, 사랑 순으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도움, 편안, 사랑, 함께함, 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학생들에 의해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등이 돌봄의 개념으로 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가르침, 공감, 신뢰, 나눔, 양육의 구성요소는 아주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1학년에서는 가르침, 신뢰, 양육의 구성요소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Leininger의 돌봄 구성요소와 비교해 볼때 도움, 편안, 사랑, 관심, 지지, 함께함, 보호, 건강유지, 가르침, 공감, 신뢰, 나눔은 보편적인 특질로서 확인되었고 온정이나 충족의 구성요소는 변영순 외(1989)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온정은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돌봄을 받은 경험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받은 경험 중 좋았던 경험을 한 사람은 180명(60.4%)으로 편안, 사랑, 지지, 관심, 온정등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뻐던 경험을 한 사람은 55명(18.4%)으로 불친절, 무시, 무관심, 격리 등을 느꼈는데 이는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돌봄의 구성요소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안, 사랑, 관심, 지지 등은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돌봄개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돌봄 경험에서도 좋았던 경험들로 나타나 서로 일치함을 보여 주었으며 온정, 신뢰, 충족은 돌봄개념 중 가장 적게 나타난 반면 돌봄경험에서는 좋았던 경험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간호에 임한다면 대상자들에게 더욱 만족스런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B. 제 언

1. 간호실무에서 직접 돌봄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돌봄을 중요시한 간호교육과정 모색을 위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고성희, 조명옥, 최영희, 강신표,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대한 연구-출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990, 20(3), 430-456.
- 김애정,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 김정선, 간호사의 돌봄의 과정에 대한 환자의 지각과 근육주사시 동통지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변영순, 김남선, 돌봄개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 1989, 1, 84-95.
-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1981.
- 조갑출, 돌봄의 본질과 간호윤리,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91, 176-188.
- 조병익, 웬스터 신영한대사전, 서울 : 일증당, 1984.
- 최영희,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 학술심포지움, 1990.
- 한경자, 간호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법, 대한간호학회지, 1987, 17(2), 99-109.
- Bevis, Em Olivia, Caring : A life forces in Leininger M.(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Charles B. Slack, Inc. Thorofare, New Jersey, 1978.
- Bevis, E.O., Curriculum building in Nursing a process, Mosby, 3rd, edi., 1982, 127-139.
- Carper, B.A., The ethics of Caring, A.N.S. 1979, 1(3), 11-19.
- Field P.A., Client Care-Seeking Behaviors and Nursing Care : Care,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 Slack, 1984, 249-262.
- Heidegger M.,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Robinson R. Harper & Row, New York, 1962, 242
- Leininger, Madeline, Transcultural Ns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8.

- Leininger, Maeleline, Cross-Cultural Hypothetical functions of caring and Nsg. Care, in Leininger, M(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Charles B Slack, Inc., Thorofare, New Jersey, 1979.
- Leininger, Madeline, Transcultural nursing : An overview, *Nursing outlook*, 1984, 32(2), 72-73.
- Leininger, Madeline, The Phenomenon of Caring :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 theoretical considerations : In *Caring-An Essential Human Need*, Therofare, New Jersey, Slack, Inc. 1981, 3-15.
- May R., *Love and Will*, W.W. Norton & Company, 1969.
- Mayeroff, M., *On Caring*, Harper & Row, New York, 1971.
- Mitchell P.H., Loustau A, *Concepts Basic to Nursing*, McGraw-Hill Back Company, 1981.
- Watson J., *Nursing :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 Little Brown, 1979.
- Watson J., *Nursing :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1986.
- Watson J., *New Dimensions of Human Caring theory*, *Nursing Science Quarterly*, Williams, & Wilkins, 1988, 175-181.

- Abstract -

##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aring

*Kim Jeong Sun\**

Caring, according to Leininger, is the essence of nursing ; it is the central and unifying domain of science and practice of nursing.

The problem addressed by the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aring.

The purpose was to provide theoretical understanding at how students conceptualize caring throughout the three years of their educational preparat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43 nursing students of one three-yea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in a major regional city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6 to 25, 1991, through an open-ended questionnaire.

The data analysis used was descriptive method.

Validity was strengthened by confirmations with by a doctoral candidate and three other nursing professors.

From the data, 557 descriptive statements were organized into 70 caring behavior patterns and 16 categories of caring.

The 16 categories were helping, comfort, love, concern, support, being present, protection, health maintenance, fulfillment, warmth, instruction, empathy, trust, sharing, restoration and nurturance.

The five categories primarily reported by first year students were, in order, helping, comfort, restoration, protection, and love, by second year students, helping, comfort, love, being present, and support ; and by third year students, helping, comfort, love, concern, and support.

Instruction, empathy, trust, sharing and nurturance were least reported by the students.

Instruction, trust and nurturance were not expressed by first year students.

The Korean nursing student's concepts, of caring appeared to be similar to Leininger's caring constructs but warmth and fulfillment were specified by these students.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oncepts central to nursing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at the discipline.

---

\*Christian Hospital College of Nursing